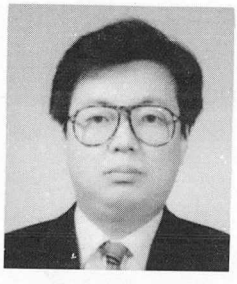
산자수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주 영 진
(제일제당 양돈P.M)

요즈음 양돈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또한 대화속에서는 즐거운 마음과 사업을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지난 해 연말까지만 해도 올해의 양돈경기는 모두가 불투명하게 예측하였고, 계속 이어진 침체의 늪 속에서 축산인 모두가 허덕였던 것 같다. 그러나 금년 3월이후 회복한 돈가로 이제는 얼굴의 주름이 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돈육수입과 중금속물질 잔류라는 터무니 없는 보도로(축산업계에) 다시 한번 찬물을 끼 얹고 있다.

우리의 축산업은 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 문화의 개선,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외식산업의 발달 등 일시적인 축산경기의 침체를 제외하고는 엄청난 성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불과 1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경험하였다. 작년 초 이상구신드롬에 의한 소비위축, 사육두수 과잉에 의한 생산비 이하의 양돈경기 등이 그러하였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쇠고기의 범람, 육가공 캔제품의 50%가 넘는 국내 소비시장 점유 등이 양돈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악재로 작용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쇠고기 방출량 증가, 육가공 원료육 수입추천 등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의 사육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우려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수입쇠고기의 경우도 처음에는 일부 호텔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차츰 그 영역을 넓혀 나갔듯이, 양돈업도 이제는 국제시장의 격전장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살코기 증체는 체중 70㎏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농장의 능력에 따라 젖먹이사료를 보다 길게 급여하는 것이 사료요구율과 출하일령을 개선시키고 사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있다.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이나 양돈장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자라는 것은 귀에 따갑도록 말하고 들어 온 것이 사실이나, 실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실행에 옮겼으며 또 개선하였는가에 대해서 냉철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자들은 얼마나 실행가능한 일을 제시하고 지도하였는지 묻고 싶다.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축산관계자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역할분담에 의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만이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의 양돈업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대형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영을 규모있게 하는 농장은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심지어는 돼지의 능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규모만 늘려 경기가 좋아지면 큰 몫을 차지하겠다는 투기심리도 간혹 목격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방식에 의존해서는 안되겠다. 참고로 주요 나라들의 양돈 생산 기술자료를 보면 〈표1〉과 같다.

〈표1〉 주요국의 양돈생산 기술 및 생산비 비교

국 명	모돈1두당 연간 산자수	
	우수 농가	평 균
영 국 1)	24.7	21.3
덴 마 크 2)	21.1	18.8
대 만 3)	22.5	—
일 본 4)	25.0	20.0
한 국 5)	23.1	17.2

자료 : 1) MLC Annual Report(1988).
2) Danish Bacon and Meat Council Statistics(1987).
3) 대만농업연보(1987).
4) 농림수산통계(일본농수성(1988)).
5) 축협중앙회(1987).
6) 각국 전문가 분석자료(1989).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모돈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 모돈 1두당 연간 산자수를 더 높여야 한다.

양돈장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하때까

〈표2〉 순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항 목	중 요 도
분만율 0.1회 개선(모돈/년)	2
수태율 10% 향상	7
사료요구율 0.1 향상	13
한배새끼수 1두 증가(모돈/년)	83

지 몇포의 사료를 먹었는지, 출하일령이 몇 일 걸렸는지에는 매우 민감하나, 농장의 평균 산자수에는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 농장의 순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배새끼를 얼마나 많이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표2참조).

그러면 새끼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종부전의 강정사양, 임신말기의 증량급여, 종부시 2~3회 교배, 번식성적이 우수한 종돈의 선발 및 이용, 유·사산을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 등 매우 많은 방법을 농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한가지 첨부하고 싶은 사항은 여름철을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해마다 4, 5월에 돼지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돈육소비가 많다는 점과 이 시기에 출하되는 출하두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말하면 여름철에 교배된 모돈의 성적이 다른 계절에 비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절기에는 모돈과 웅돈이 더위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운동장 그늘막 설치, 사료급이시간, 교배시간의 조절, 통풍시설의 추가 설치 등).

2. 성장단계에 맞는 사료를 급여하여야 한다.

육성용 돼지의 경우 흔히들 경기 여하에 따라 사료급여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경기가 호전될 때에는 돼지의 성장이 늦어지는 것 같아 마음을 졸이게 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는 권장되고 있는 급여프로그램을 무시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성장단계에 맞는 영양을 공급할 때만이 최적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 돼지는 인간에게 고기라는 최종산물을 공급하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유전적으로 더 많은 살코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개량되고 있다. 돼지의 유전능력이 발달될 수록 거기에 적합한 사료가 공급되어야 하고 급여프로그램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살코기 증체는 능력이 우수한 개체에서는 체중 70kg까지도 이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실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돈장에서는 육성기간 동안 젖먹이 돼지사료와 영양수준이 거의 비슷한 고영양사료를 체중이 70kg 이상(또는 90kg)까지 급여하여 육성시기에 증체량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농장의 능력에 따라 젖먹이사료를 보다 길게 급여하는 것이 사료요구율과 출하일령을 개선시키고 사료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돼지의 능력을 고려치 않은 급여프로그램으로 능력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나빠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까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에서 여름철의 번식돈 관리의 중요성과 육성돈의 사료급여관리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양돈경기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증가함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장자체의 기술목표를 설정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행하여질 때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그 힘을 발휘하리라 본다.*